

문화수도 이상기류

문광부, 예산 보류·亞문화전당 건립 연기

광주시·지역 정치권 반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일정을 연기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문화관광부 및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에서 제기되고 있어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기반이 미비하고 촉박한 추진 일정 등을 들어 사업 전반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마저 보이고 있어 광주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도 송재구 위원장 선임 이후 4개월째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관광부는 24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우선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당 규모는 유지하되 전당 건립 일정을 당초 2010년 전면 완공에서 2010년부터 단계적 완공으로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박물관 등 기존 장르별 문화시설처럼 정형화된 콘텐트나 사업 프로세스가 없어 많은 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광부의 논리다.

또 문화관광부는 정부의 국고 지원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에 한정해 가능하고 도시 조성 등 지역성 사업은 광주시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민간투자방식 도입, 전당 내 수익시설 운영 등 수익구조 창출을 통해 운영비 등 국고 의존도의 최소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축소하라는 통보와 마찬가지로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광부는 사업 규모에 맞도록 추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재원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문광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아

시아 문화 전당 운영수익이 발생되는 오는 2010년 이후로 논의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별도 국책사업 예산으로 독립 계상을 하더라도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총액예산제로는 문화전당 건립 예산 확보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문화 기반 시설 조성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확보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오후 문화중심도시 추진과 관련, 정부·여당간 당정협약에 참석한 양정일, 지병문 의원 등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문화중심도시 건설 관련 특별회계는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함께 처리돼야 하며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도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 완공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문광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공항 해외여행객 북적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자 24일 오전 광주 공항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수속을 밟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관공서·중소 건물 오늘부터 금연

25일부터는 중·소 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303평) 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과 함께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이 금연 구역이 된다.

그동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복합용도 건물내 2천㎡ 이상의 공장·사무실, 1천㎡ 이상의 정부 청사가 금연 구역이었다.

PC방과 만화방의 경우 차단벽 설치 등을 통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토록 했으며,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곳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 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채무 8,894억...예산의 39%

전국 광역시중 대구 이어 두번째 높아

광주시가 전국 7대 광역도시 중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대구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지자체별 지방채무는 대구시가 2조2천946억원으로 가장 많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6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연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8.9%로 전국 7개 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았으며, 채무액은 8천894억원으로 다섯번째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586억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했으나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도한 채무 비중으로 광주시의 재정 탄력성을 떨어 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2004년 말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40.0%, 채무액은 9천322억원이었다. 광주시는 2005년 들어 지방채 발행을 2004년 1천297억원에서 392억원 줄여 905억으로 억제, 발행액 보다 상환액이 많아 채무 비율과 채무액이 다소 감소했다.

한편 2005년 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총 채무액은 17조4천480억원(국내채 17조2천321억원, 국외

구분	채무액(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서울시	10,111	5.8
부산시	18,765	35.8
대구시	22,946	68.0
인천시	11,195	26.7
광주시	8,894	38.9
대전시	6,250	30.1
울산시	5,680	36.6

채 2천1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천12억원 3.0% 증가했다. 연도별 채무변동 추이를 보면 2000년 18조7천955억원, 2001년 17조7천696억원, 2002년 17조903억원, 2003년 16조5천264억원, 2004년 16조9천468억원 등이었다. /채희종기자 chae@

北, ARF 참가...6자회담은 불투명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인민폐 위조...中은행도 北계좌 동결

북한은 이달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

(PMC)나 28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시에드 하미드 알바르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24일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시에드 하미드 장관은 북한이 "어떤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기 전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장관)이 북한측 상대자와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반기문 외교총장부 장관이 북한

백남순 외상과 면담을 가질 것임을 밝혔다.

앞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달 오전 백남순 외상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7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제2위의 은행인 중국은행(BOC)이 북한의 위조달러 및 위조 인민폐 사건과 관련, 자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24일 미 정 부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호남 비하' 이효선시장 당권 정지

한나라당, '수해 골프' 흥남중 前위원장은 제명

한나라당은 24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호남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광명시장에게 1년간 당원권 정지 및 탈당 권유를,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친 흥남중 전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 이효선 광명시장의 경우 윤리위는 1년간 당원권 정지 처

분을 했으나 최고위원회는 제재수준이 낮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효선 광명시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아전에 서울특별시법률사무소장으로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배움이 주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겸손 겸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전남(10회), 한양대 법학과(79학번)
- 제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18기)
-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 안동지검, 부산지검 등, 수형지검 장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 광주지검 김해부장,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 서울동부지검 형사제6, 제3부장검사

변호사 오해균 올림

■ 사무소 : (2006. 7. 24일)

■ 개업인사 : 서울 광명구 구로동 245-71 대성빌딩 405호

■ 대표전화 : (02) 448-1900

■ 개업일 : 2006. 8. 10(목) 17:30부터

좋은 사람, 좋은 여행 - 상품은 여행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주요인원 동향

- 1. 1,100,000
- 2. 2,000,000
- 3. 2,990,000
- 4. 2,990,000
- 5. 1,470,000
- 6. 1,590,000
- 7. 999,000

미주대행부

- 1. 1,100,000
- 2. 2,000,000
- 3. 2,990,000
- 4. 2,990,000
- 5. 1,470,000
- 6. 1,590,000
- 7. 999,000

방시인원

- 1. 1,100,000
- 2. 2,000,000
- 3. 2,990,000
- 4. 2,990,000
- 5. 1,470,000
- 6. 1,590,000
- 7. 999,000